

# 나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본격 가동

### 100억 투자 개소...천연색소 추출·건강기능성 식품 생산 융복합 6차산업으로 육성...희망 농업인 창업보육 역할도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가 천연색소 추출과 고부가가치 가능성 제품 생산을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최근 동수동 국민인대산업단지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관근 시의회 의장, 지역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100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1만여㎡(3025평), 건축면적 3956㎡(1196평), 지상 3층 공장동과 1층 연구동으로 각각 구성됐다. 주요 장비는 추출기와 농축기 2대, 원심박막 농축기 1대, 동결건조기 2대 등 고가의 장비와 농산물 세척·착즙을 위한 전처리실과 추출·농축실, 동결건조실 및 HACCP·GMP 기준에 적합한 포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색소센터에서는 천연색소 추출과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과즙 및 착즙종류의 음료와 농축액, 동결건조에 따른 천연분말 등의 형태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시제품 개발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루 최대 8톤까지 원물 처리할 수 있는 생산기능과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색소센터는 또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 인가공을 지원하고, 새로운 식품창업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도 맡는다. 나주시는 색소센터개소로 농업인이 주도하는 식품산업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품목

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농촌관광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융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천연색소 산업의 시장이 소규모여서 당장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전략 산업인 만큼 천연색소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천연색소 산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농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가공을 병행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나주 농산물 산지거점센터에서 직원과 배 배농민들이 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 노후 산지유통시설 국비로 개보수한다

### 농림부 공모 선정...8억 확보

나주시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의 개보수비로 국비 8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통합조직인 나주거점 APC와 참여조직인 마한농협 APC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확보된 국비와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개보수하고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

리와 작업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선별기 및 장비 교체 등을 통해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배 선별시 원물손상 발생과 함께 포장 단계에서 빈번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또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작업 시스템을 마련해 나주배 품질향상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처리시설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다문화 12가정 “꿈에 그리던 친정 갑니다”

### 나주시, 양북항공편 등 지원 6개국 50명 9박10일 일정

나주시 다문화 여성 12가정 50명이 9박10일 일정으로 친정 나들이에 나섰다. 나주시는 “다문화가정 지원시책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6개국에 12가구 다문화여성들이 친정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고향출발에 앞서 지난 21일 송월동 엠스테이호텔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가족 앨범을 만들었다. 또 이들은 모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소감을 듣거나, 방문 가족들의 소감을 나누며 고향방문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표현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양북항공편과 현지교통비를 지원해 6가정을 보냈으며, 올해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12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친정나들이를 떠나는 다문화 가족들이 지난 21일 강인규 나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읍성권 빈 점포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

### 내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일자리·소득 창출 집중 지원

나주시가 읍성권의 빈 점포를 주민과 청년의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도 앞당기겠다는 게 나주시의 계획이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우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일자리 및 소득창출 공모 시범사업’은 읍성권 도시

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빈 점포 활용 사업이다. 시는 주민과 청년들이 길거리 음식 등의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선정과 일정액의 창업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점포 개점을 위해 지역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나주시,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장기임대계약(신탁계약) 체결에도 나선다. 시는 특히 창업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객을 상대로 상품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길거리 공연과 프리마켓, 주말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 창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관계자는 “빈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골목길 상권이 쇠락해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판단에 따라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 오지마을 ‘찾아가는 영화관’ 추진

나주시가 농한기인 12월까지 관내 오지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사회적기업인 (주)동신이행과 함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관내 오지마을과 지역노인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는 영화 ‘대호’와 ‘장수상화’를 반남면, 공산면, 영강동, 노안면 등 17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부노인복지관과 나주노인복지관에서 총 19회 상영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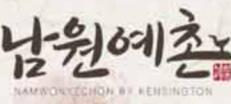
## 나주시니어클럽 고령화친화기업 선정

### 국비 3억원 지원 받아...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나주시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고령자친화기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나주시니어클럽은 국비 3억원을 확보해 기존 이화장류사업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장류제품과 협력회사인 (주)나물사랑의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용해 식재료 활용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손복남 나주시니어클럽 관장은 “고령



나주시니어클럽 장류 사업단원들이 직접 담근 된장의 품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자 친화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나주시역 친환경학교급식, 지역 로컬푸드 매장, 전국단위 체인망을 가진 친환경 음식전문식당 등 대량 납품처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30명의 고령자 고용을 목표로 올 12월까지 (주)파란나무세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 명품 한옥 '남원예촌 by 켄싱턴'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예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예촌 by 켄싱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